저주 받은 증거, 저주 벗어난 증거

(민23:1~30)

4.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5.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6.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7.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저주 받은 증거, 저주 벗어난 증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저주 받은 증거 저주 벗어난 증거'
제가 초등학생 때에 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 어느 재벌 그룹이 있는데 그 회장님의 사진이 미디어에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속 회장님의 이마가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너도 상대를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재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셔서 대학시험을 처음 볼 때에 상대를 지원했다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아버지도 저도 믿는다고는 했지만 영적인 미몽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입니다만, 그 말씀이 참 오랫동안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그러한 미몽의 어두운 안개 속에서 벗어나셔서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에 여자 집사님으로 부감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매주 마다 부장님 부감님이 모여서 교사회의를 하고 난 뒤에 부감 선생님 맞은편에 대학생 남자 교사가 있었는데 부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세상에! 코가 돈이 붙을 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들 부감 선생님께 주목하니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남학생의 코가 뭉툭한 공이 세 개가 붙어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그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누가 내 관상을 보고 앞으로 십년 내에 부귀영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 때에는 웃지

만 그 말이 기억에 남는 것은 뼛속으로부터 은근히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 반대로 점괘가 아주 불길하게 나왔다면 재미삼아 본다고 해도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말 한 마디나 행동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인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이 힘을 합쳐서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더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이 두 번에 걸친 저주의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복술가 발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버리십니다. 발람의 마음에는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약속된 어마어마한 복채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철옹성 애착입니다. '철옹성 애착'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발람의 사건에 대해 '불의의 삯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애착이고 또한 '미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삯을 사랑해서 영적 세계를 3차원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근본 의도와 이 모든 행동이 미친 행동이라고까지 과격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선민에게는 실효성 있는 저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 먹는 하마와 같이 저주 먹는 하마입니다. 관상쟁이들이 내 관상에 저주가 가득하다고 하고, 용하다는 사람들이 내 사주팔자에 저주가 가득하다고 점괘나 손금이 나오고, 지금의 내 형편이 아무리 저주스럽고, 지금까지의 인생의 행로가 남이 보기에 저주스러움으로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순간 모든 저주는 사라지게 되고 저주의 그림자조차도 감지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신석증'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신장에 돌이 생겨서 가느다란 요로 안으로 돌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 돌이 세 번 나왔습니다. 새끼손가락 첫째 마디보다 조금 작고 반짝반짝한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이 나왔을 때 제가 집사람에게 '이걸로 반지를 해줄까?'라는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요로에 끼어서 나오는 동안에는 딱 죽을 것처럼 지옥 같은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이 나오자마자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이 고통이 싹 사라지고 천국이 주어지는데 저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주 속에 있는 동안에는 지옥이지만 저주가 걷히고 나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선민'을 말합니다. 내가 선민으로 선택 받았다면 그 증거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선민이라면 나를 해할 점술이 없고 나에게 저주를 퍼

부을 복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사주팔자와 태어난 골상과 점괘와 손금이 모두 저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나에게 해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점쟁이가 '당신 오늘 큰일 났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있다면 어떤 저주도 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막으심'은 발람의 사건 하나로 끝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선민들에게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선민에겐 저주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 생활화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날마다 드려지는 상번제를 통해서 저주가 어린양에게로 넘겨져서 타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놓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힘을 합칩니다. 저주는 복이 사라진 상태인데, 참 복을 모르면서 참 저주를 알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저주'라는 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실제로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주 받은 증거와 저주에서 벗어난 증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히11:36~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 되면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후11: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저주와 정반대에 서있는 복음으로 기쁨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위한 일꾼인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23~27절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저주를 받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저주의 극치입니다. 그래, 굶주린 것이 저주입니까? 질병이 저주입니까? 사도 바울은 더더군다나 몸에 사탄의 가시를 담고 있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일이 잘 안 되는 불통이 저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에 매진하는데 왜 가는 곳마다 불통하고 막히고 박해당하고 쫓겨나고 굶고 헐벗고

왜 난파를 당합니까? 인간이 박해를 가하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자연까지도 선교를 하러 가는 길에 주어져서 파선을 당하고 풍랑을 만납니까? 난파를 당해서 일주일 동안을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저주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저주로 충만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가득했다는 증언은 가득한데, 환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복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증거와 증언은 거의 없고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박해인데 이상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세속적인 의미에서 가장 복을 많이 누렸고 강력했고 권력과 부를 거머쥐었다고 할 수 있는 중세의 교회가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 할 만큼 교회가 썩어있었습니다. 그럼 저주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이론적으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주가 뭔지를 모르고 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 발람과 발락의 문제는 이미 그들은 저주 속에 찌들어 있는 것이고 저주에 잠겨있고 저주에 먹혀있고 저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주도 모르고 복도 모르는 혼돈과 착각 그 자체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혼돈과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저주가 처음 이 땅에 임하는 현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3:14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첫 번째 저주를 뱀에게 내리십니다. 아담에게는 창3:17~19절에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하십니다.
이상한 것은 뱀과 아담에게 저주가 주어지는 것을 보면 먹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뱀과 아담에게 내린 저주의 내용은 전부 먹는 것입니다.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하시고 아담에게는 ‘먹으리라’는 말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라고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먹는 것은 즉 굶주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하지만 굶었으므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빌4:11~12절에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육체의 굶주림이 곧바로 저주인 것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굶주림이 저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서 배부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님의 사이즈로만 마음의 배가 찰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게 되었을 때 굶게 되고 마음의 배가 굶주리는데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배가 굶주린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발람이 640km를 불원천리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 왔습니다. 온 이유는 복채에 대한 철옹성 같은 집착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을 향한 철옹성 같은 집착이 저주의 증거인 굶주림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독초를 먹고 온 몸이 파랗게 변한답니다. 이북에서도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들에게는 죽을 주고 엄마는 흙을 먹는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본적도 있습니다. 흙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흙을 먹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저주입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이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은 마음에 내린 저주가 활성화되고 있는 결과이지 저주 자체가 아닙니다. 미국, 우리나라, 일본 같이 잘 사는 선진국에서 필요이상으로 섭취하는 모든 돈들이 가난한 나라로 가야하는데, 저주 받은 상태에서 저주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주의 결과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세상의 굶주림입니다. 그것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참 저주는 마음의 굶주림인데 그 마음의 굶주림은 선진국에서 이 세상 것에 대한 철옹성 같은 애착으로 더 강렬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철옹성 같은 애착으로 돈(복채)을 붙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저주의 증거다. 저주라는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네가 누구를 저주하겠다는 것이냐? 항차 내가 선택한 선민을 향하여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고 계십니다.
돈, 권력, 가족, 배우자, 애인, 건강, 승진 등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배가 부를 수 있다고 믿는데 이것이 저주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난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죄 사함과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세상에서 벗어난 상태가 저주에서 벗어난 상태이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십자가 사건을 죄 사함의 사건으로 국한시켜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저주로 되돌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죄 사함의 사건으로 국한시킨다면 백발백중 저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에 국한시키는 것은 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죄 사함을 주신 이유는 내가 나로서 의인이 되는 것에 목적을 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만나서 기뻐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 티켓을 쥐고 있는 상태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 상태면 구원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시하고 부활과 동일시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동일시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죄 사함으로 십자가를 국한시키는 모든 자들이 이단입니다. 저주로 돌아가는 자이고, 남도 저주로 돌리는 자입니다. 그럴 때 선민을 향한 진짜 저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 메소포타미아 복술가들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일곱 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칠층으로 쌓은 것인지 평행으로 벌려놓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일곱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발람의 번제가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민을 저주로 회귀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일곱 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의 의미는 영성 도매업자가 영적 세계를 3차원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대량 구매의 현장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께 뇌물을 먹이고 하나님을 구슬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주가 발동되고 실효성 있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 쉽게 말을 하고 당연한 말처럼 많이들 사용하는데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발람의 번제단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았고 저주로부터 벗어났기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복 받은 것의 열매일 뿐 복 받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본인들도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지를 모르면서 정신이 없어요. 복은 이 세상과 무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무관하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하늘로 복 받은 자들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할 수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발람의 제사로 만들었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마음이고 내 공로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결되면 나는 오직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주님만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되지 않고 나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어 이기적인 복이 되어 버립니다. 이

기적인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다시 저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자들이 하는 것이 발람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제단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철옹성 같은 애착으로 세상 것으로 배 부르려는 이 저주의 상태, 저주에 찌들고 저주에 먹혀버린 내가 불에 타 죽는 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은 저주에 찌든 상태에서 나온 소원을 하나님의 힘을 통해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을 저주의 자리로 내보내셨는데, 그 저주의 자리에서 저주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선악의 판단을 기준으로 저주의 소산인 이것저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니, 발람의 미친 행동이 교회 안에 충만해서 홍수가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지요.
중세에 바티칸 궁전이 지어진 것이 복입니까? 그 화려한 건물이 지어진 것은 저주입니다. 지금 교황님이 그 바티칸 궁전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다. 그 분이 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 선민들이 이 땅에 바티칸 궁전을 짓는다는 것은 저주의 증거입니다. 그 건물이 없으면 만족이 안 되고, 명품이 없으면 만족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저주의 증거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난 증거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순교를 당해도 기쁨이 관철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유복해지는 것이 저주에서 벗어난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병이 들었어도 감사가 끊어지려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식적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나오는 감사를 어쩌란 말입니까? 병이 걸려서 죽겠는데도 감사가 나오는데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도 없고 굶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항상 부족하다면 저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향한 철옹성 같은 애착이 살아 있습니까? 저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생활화하지 않는 십자가는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저주 받은 증거와 저주에서 벗어난 증거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통해 선민다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